전주객사, 고려시대부터 존재 추정

시, 풍패지관 발굴조사 거쳐 규모·축조 내력·변천과정 밝힐 자료 확보

조선시대 전기 유물·고려시대 명문기와 출토·대지 조성층도 확인

전주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전주 풍패지관(객사)이 고려시대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굴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려시대 객사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강릉 임영관터를 제외하고는 알려진 사례가 극히 드물어 전주객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천년고도 전주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보물인 조선시대 객사인 전주 풍패지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풍패지관의 규모와 축조내력, 변천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발굴조사 결과 월대(月臺, 궁궐 혹은 정전 등 중요한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 형식의 대(臺))시설과 월대시설 남쪽으로 연결된 중앙계단지, 월대 주변의 박석시설 등의 유구가 확인됐다. 유구 안에서는 봉황무늬수막새와 분청사기 등 조선시대 전기의 유물이 출토돼 풍패지관의 본래 형태와 건립연대, 위상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풍패지관 건물 남쪽에 동서 길이 17.5m, 남북 너비 5.2m 규모인 월대시설은 조선후기의 고지도를 통해 존재 가능성이 추정돼 왔으며, 이번 발굴조사에서 처음으로 그 전체 모습이 확인됐다. 또, 월대 내부에서는 분청사기편이 출토됐으며, 이를 통해 이 월대는 15세기 무렵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전주 풍패지관(객사)이 고려시대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굴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은 발굴조사 후 전경)

중앙계단은 월대시설 남쪽 중앙에 설치돼 있으며, 너비는 2m다. 발굴조사 결과 한 단만 잔존하고 있으며, 끝에는 계단 발판 1열이 추가로 확인됐다. 박석시설은 월대와 계단 시설을 중심으로 남쪽과 동쪽에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조선시대 월대시설과 박석시설 아래는 고려시대의 대지 조성층과 통일신라시대의 대지 조성층도 확인됐다.

특히 고려시대 대지조성층에서는 동익헌 남쪽에서 고려시대 초석건물지의 유구가 확인됐으며, 그 주변으로 '전주객사 병오년조(全州客舍 丙午年造)'의 글자가 찍힌 고려시대 기와편과 상감청자편, 일휘문수막새, 건물벽체편, 전돌 등이 출토됐다. 이 유물들은 전주객사가 고려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라는 것이 발굴조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주객사가 고려시대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기록으로는 고려시대 문신이었던 이규보가 전주목의 관리로 부임했을 때인 1199~1200년 무렵 전주객사를 배경으로 지은 시문이 동국이상국집에 전해지고 있다. 이 기록을 참조하더라도 전주객사는 적어도 1199년(고려 명종 25년)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대지 조성층에서 적심석기초(생땅이 나올 때까지 기초웅덩이를 파고 적심석(積心石)이라고 하는 자갈을 층층이 다지면서 쌓아 올리는 기초)의 흔적과 함께 '官'자명이 찍힌 선문기와, 완(토기) 등도 출토됐다. 통일신라시대 대지 조성층은 풍패지관 외에도 전라감영과 경기전 등 전주 구시가지 일원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통일신라시대 완산주 설치와 함께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 풍패지관은 왕의 상징인 궐패(전패, 조선시대, 각 고을의 객사에 모셔 두는 '闕(궐)'자를 새긴 나무패)를 모시고 망궐례(望闕禮, 직접 왕을 배알하고 경의를 나타낼 수 없을 때, 멀리서 궁궐을 바라보고 절하는 예식)를 지내며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중요한 건물이지만 상대적으로 문헌기록이 적어 건립 및 중수내력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이에 시는 풍패지관의 규모와 형태, 건립시기 등을 파악하고, 보존정비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풍패지관 주관건물의 남쪽구역과 창고와 담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쪽구역의 두 지점을 대상으로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풍패지관의 복원계획과 문화재로서의 위상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글로벌 문화여행도시 전주'

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 분야 4대 추진 방향 제시

전주시가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이자 3회 연속 대한민국 지역문화지수 1위인 문화수도답게 전주다운 문화·관광·체육 기반 조성에 집중하고 문화일상의 회복을 준비하기로 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은 22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전주다운 글로벌 문화여행도시, 문화로 행복한 전주'를 비전으로 한 문화·관광·체육 분야 4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4대 추진방향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도시 조성 △가장 한국적인 관광거점도시 육성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으로 천년고도 위상 재확립 △체육으로 행복한 변화하는 도시, 전주 등이다.

먼저 시는 전주만의 특색 있는 문화시설과 문화콘텐츠 확충으로 문화경쟁력을 높이고, 예술인 창작 및 복지 지원 확대로 3회 연속 지역문화지수 전국 1위에 빛나는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생으로 탈바꿈하는 '예술공간, 완산벙커 1973'과 예술복합문화센터(예술도서관), 소수문화(서브컬처) 중심 복합문화공간을 연내 조성하고, 종합경기장에 들어설 한국 문화원형 콘텐츠·체험 전시관과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을 앞당겨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창작음악 연습공간 운영,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등을 추진, 예술인 복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동시에 팔복예술공장 예술놀이터와 한국공예장인학교 운영 등 일상이 예술이 되는 예술교육도시의 면모를 다지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문화예술공연을 활성화시키는 등 전주다운 문화 정체성을 강화키로 했다.

가장 한국적인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한옥마을을 포함한 구도심 100만 평 문화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국적인 문화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거점 공간 마련과 함께 여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관광거점을 전주 전역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전주 특화형 영화영상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한지·한복·한식 등 전통 한문화 콘텐츠의 세계화를 이끄는데도 공을 들인다.

구체적으로 한옥마을 내 외국인 특화 관광허브(구 김치문화관)와 (가칭) 한옥마을 국제관광안내소 건립, 경기전 관광안내소 리모델링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한옥마을 쌍샘우물 복원 및 광장 조성, 녹색정원 조성, 한옥마을 인증제 '한옥의 별' 운영 등을 통해 여행환경을 개선하고 여행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는 △제23회 국제영화제 개최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구축 등을 통해 전주 특화형 영화·영상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영화인이 사랑하는 독립영화의 성지이자 세계적 영화도시 전주로 성장할 초석을 다지기로 했다. 한지복합문화공간인 전주천년한지관 개관과 전주한지문화축제·전주비빔밥축제·한복문화주간행사 등의 축제와 '조선팝 프로젝트'를 포함한 전주만의 한(韓)문화 육성으로 K-문화 대표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개최 준비에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전라감영 전체(서·남측부지)복원 △전주부성 복원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이 추진되고, 전주문화재야행 등 경기전과 전라감영, 근대·미래유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끝으로 시는 시민 누구나 누리는 스포츠 공간 거점을 확충하고, 국내외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등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의 스포츠 공간 거점 확충을 위해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센터와 혁신도시 다목적 체육센터를 연내 완공하고, 전주실내체육관과 컬링 전용경기장 등 국제·전국 대회 규모에 걸맞은 스포츠 거점시설도 속속 구축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드림스타트-전주시 음악학원연합회, 업무협약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22일 전주시음악학원연합회(회장 유예선)와 전주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악기수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다음 달부터 희망하는 음악학원에서 본격적인 클래식 악기수업을 개별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 음악학원연합회는 클래식 악기 지도비를 재능기부 형태로 일부 후원, 참여 아동은 소액의 본인부담 강습료(1만5000원)만 내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비용은 아동들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숨은 재능 발견을 돕기 위해 시가 지원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 협약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인 전주시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활용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전주시와 마펑워 코리아는 22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과 박경진 마펑워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시장 대상 전주시 관광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행객들이 작성한 여행후기를 통해 지역의 여행정보를 얻고 여행일정을 작성하는 여행정보 공유 플랫폼 마펑워는 모바일앱 누적 다운로드 7억6000만 회와 일 사용자 수 800만 명, 1억30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정보공유 플랫폼이다.

양 기관은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중국시장 홍보 활성화를 위해 공동협력을 강화하고, 마펑워 플랫폼을 활용한 전주시 관광 홍보마케팅 강화 및 중국시장 대상 관광 마케팅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는 또 맞춤형 전주 관광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재한 중국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팸투어도 추진, 전주의 매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사업 추진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한다.

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 3억9416만 원을 투입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87개 동, 지붕 개량은 20개 동이 지원 목표다. 취약계층의 경우 철거비용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지붕 철거와 지붕 개량에 각각 최대 352만 원과 3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거주자 및 소유자다. 사업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현장 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 달 1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